

길는가낙죽



131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극락가는길



머 리 말

우리들의 사는것은 나이나? 고이야? 낮은업고 고별이다 오고(五
 苦) 팔고(八苦) 무량고(無量苦)가 ^여고해잇는 고해(苦海)요 싸여잇
 는 고세계(苦世界)다 그러면 어떤국도 어떤세상이던지 모다고해요
 고세계인가? 아니다 극낙세계라는데는 고(苦)가 조곰도업고 낙별
 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될수잇는대로 이 고세계를 떠나서 저 극낙
 세계를 가지아니하면 아니되겟다 그러나 극낙세계를 가자면 첫째
 방향을 알아야하고 둘째 거리를 알아야하고 셋째 가는방법을 알아
 야하고 넷째 가는실력이 잇서야한다 방향은 어느쪽이냐? 매일 서

양이면 재반가는 등근해가 종적을 숨기라고 북다라맨 것처럼 달리
여잇는 서쪽이 극낙이다 거리는 여간 천리 만리 **후** 언론할수업는
십만억(十萬億) 국토 저쪽이다 일국토를 조선만큼 잡드래도 조선이
십만억이라면 그 리수를 알기 어려울것인데 우리들이 살고잇는 이
세계 전체를 일국토라고한다 그러면 아조 알기쉽게 이런세계가 십
만억이라고하면된다 그러면 거리의 멀고 갓가운것은 다시 말할것
도업다 그와가치 원거리를 가자면 최속도(最速度)의 비행(飛行)으
로 썩만흔 광년(光年)이 걸릴것이니 우리의 범력(凡力)으로는 도
저히 가자는 재조가업다 그러나 가기는 가야한다 어셔한 방식으로
가야할가? 이것은 발과 몸으로도 갈수업고 기차 료선 비행기로도

갈수업다 오즉 마음의 힘으로 지혜의 배로 제행의 수레로야 가게
된다 그러면 거리는 열여섯가지 관(觀) 곳마음으로 보는것)하는 법
이있다 그 법은 석가모니께서 위제히부인과 **빈화**라사라왕을 위하
야 말씀하신것이다 이 열여섯가지는 극낙가는 방법곳로정기와로
자가 될것이오 그것을 관하는것은 곳 극낙가는 실행일것이다 성인
이 말씀하신 방법을 의지하야 성력(聖力)을 의뢰하는 실행을 하는
사람은 극낙세계밖에는 다시 갈데가 업다 **바**구어 말을하자면 극낙
세계가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것이다 이방법
대로하면 칠칠일에도 갈수잇고 단칠일에도 갈수잇고 일일일야(一日
一夜)에도 갈수잇고 십념(十念)에도 갈수잇고 일념(一念)에도 갈

수있다 이리케 조흔 묘법을 몰랐스면 그만이지마는 알고야 참아
 었지 아니할수잇스며 아니 권할수잇스랴! 그럼으로 재조업고 법
 량업스나 심륙판경을 번역하여서 여러분의 극낙가시는 안내기로
 제공하여드립니다 만흔 착오가 잇슬줄도 아는바입니다마는 실행이
 라는 큰과도(軌道)에 올라안즈신다면 안내기(案內記)에 오기(誤記)
 된것은 넘겨할것이 안됩니다 웨 안내기가 잘못되었드래도 실지
 괴도는 그것을 따라가지만코 제^정도로만 가는바답입니다 그리하여
 변변치안은 이것으로써 여러분의게 정법륜(正法輪)에 탑승(塔乘)
 하시기까지만을 안내하여 드릴다름이고 탑승하신이후에까지 안
 내하는 책임 기릉 또는 필요까지 업슴을 말하는바입니다 그러나

변변치못한 안내기라도 아조 업는것보다는 나으리라고 스사로 믿
 는마음으로 이것을 비위조케 여러분압해 내여놓는것입니다 만일
 기대한바와가치 여러분의 참고용으로나 되신다면 그功德도 극낙
 으로 회향하겠습시다

세존강생이천백오십구년임신십이월성도절날

번역자의말

극락가는길

之 一 先生譯

부처님께서 제자 일천이백오십인과 삼만이천보살을 거느리시고
왕사성기사굴산(王舍城耆闍崛山)에 계시는데 문수사리보살
이 그대중에 상수로 잇섯다

그때에 왕사성중에서는 세상드문 큰일이났스니 왕사성을 서
올로하고 백성을다스리든 빈바사라왕(頻婆娑羅王)의 태자는 아
사세(阿闍世)라고하는 사람이다 악한벗조달(調達)의 꾀임에 빠져
서 그아버지 빈바사라왕을 잡아 일곱겹으로지은 방안에 가두어 두

고 모든 신하들의게 영을 내리어 한 사람도 부왕에게 가지 못하게 하
고 음식도 드려 보내지 아니하여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하여 두고
자기가 스사로 왕이 되엿더니 국태부인(國太夫人) 곧 빈바사라 왕의
왕비(王妃) 위제희(韋提希) 부인은 대왕의 일을 생각하고 구원할 법을
내었스나 엿지할 도리가 업는지라 할 일 업서 자기의 몸을 때쳐서
목욕하고 초밀(麴蜜) 꽃 복근 쌀가루를 쌀에 버무린 것(을) 몸에 바르고
영락(瓔珞) 속에 포도(葡萄) 물을 담아가지고 가만히 들어가 왕의
게바치니 대왕은 그것을 밧아 먹은 후에 물을 엿어 양치를 하고는
합장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기사 굴산을 향하여 멀리 부처님께 절
을 드리고 이 ^{천리} 말삼을 사루었다 「부처님이시여 대목건련(大目犍

連) 존자는 나의 천한 벗이오니 원하옵건대 자비심을 이르키옵서
나의게 팔계(八戒)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그 때에 목건
련 존자는 마치 날선 ^날 새 매처럼 썰리 대왕의 처소에 이르러 대왕
의게 팔계를 주더니 날마다 이러케 하였스며 부처님께서도 역시
날마다 부루나(富樓那) 존자 ^를 보내시어서 대왕을 위하여 법문을
설하여 주시니 그리는 동안에 삼칠일이 지내갔스나 대왕은 초밀
을 밧아 먹고 법문을 듣고 하는 연고로 조곰도 고생이 ^생 되지안으며
수척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혀 얼굴에 화하고 깃거운 빛을 띄
우고 잇더라

그 때 아사세왕이 수문하는 자들에게 무르되 「부왕이 아즉까지

살아게시냐？」

수문자들이 대답하되 「대왕이시어 국대부인 세읍서 초밀을 몸
에 밧으고 영락에 포도물을 담아가지고 상왕(上王)께 밧자오매
사문(沙門)묵련존자와 부루나존자가 공중으로 나라와서 상왕을
위하야 법문을 하여주시니 저의들로서는 능히 금지할수업습니다
대왕이시어！」

아사세왕은 이말을듯고 노염이 크게나서 어머니를 원망하는말이
「우리 어머니도 역시역적이다 역적과 동모가되어서 역적을 두호
하시니 그리고 사문들도 악한사람들이다 요혹스러운 주술(呪術)
를 부리어서 이렇게 악한 부왕으로하여금 여러날을 죽지안케 하

엿스닛가」하고 곧 칼을 빼어들고 그어머니를 해치려하였다

그때에 한대신이잇스니 일홈은 월광(月光)이라 총명스럽고 지
혜가 잇는사람인데 기바(耆婆)라는 대신과한가지 아사세왕의게
절을드리고 말삼을아루되 「대왕이시어 신은 듯사오니 비바론(毘
婆論)이라는 경에 말습하였스되 세계가처음 배판한이후로 모든
악하임금들이 나라를 빼앗고 왕위를 차지하려하야 아버지를 죽
인니는 일만팔천이나 된다하오나 무도하게 어머니를 죽인니는
잇다는말을 듯지못하였사오니 대왕이 지금 이런일을하시면 우리
황족의 체면에 욕되는바가 적지안사오나 신들로서는 이렇게 수
치스러운말을 들을수가업습니다 이것은 전다라(旃多羅) 곳 백

정)들이나 하는일이자 결코 황족으로서 할일이 아님니다 신들로서는 참아 이나라에 잊지못하겠습시다」하고는 손으로 카을씨스며 뒤으로 물러가버렸다

아사세왕은 그두대신의 말을듯고 두렵고 겁나는 마음으로 기바에 향하야 「네가 날을위하지아니하려느냐?」 기바대답하되 「아모쪼록어머니를 해롭게마옵소서!」

아사세왕은 기바의 말을듯고 그즉시에 참회(懺悔)하야 「나를 구원하여다오하고 칼을집어 던지어 어머니를 해치지아니하고 내 관들의게 신칙을 내리어 김흔궁중에 가두어두고는 다시나오지만 못하게하엿다

그때위제히부인은 궁중에 가치어서 근심하고 애쓰는마음으로 멀리기사굴산을 향하야 부처님께 예를드리고 이러케 말슴하엿다 「부처님이시어 예전에는 항상 아란존자를 보내시어서 나를 위문하여주시더니 내가지금 이러듯 근심걱정중에잇서서 기록하신 부처님을 엿어 뵈을수업사오니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란존자를 보내시어서 나와서로 만나보게 하여주옵소서」 이말슴을 듯고는 슬피우러 눈물이 비오듯하엿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기사굴산에 계시어서 위제히의 마음에 원하는바를 알으시고 곧 목련련존자와 아란존자의게 명령하시어서 공중으로조차 왕궁으로 오게하시고 부처님도 역시 기사굴산에서

형용을 감추시고 왕궁에 나타나시니 그때 위제히부인은 울다가 머리를들어 부처님을 뵈오니 몸은 자금색(紫金色)이시고 백가지 보배로 되어있는 연화우에 안즈셨는데 목련존자는 원편에 피시고 아란존자는 올흔편에 피시고 잇스며 제석(帝釋)이며 범왕(梵王)이며 모든 호세천왕(護世天王)들은 허공중에 잇서서 **한**들 **뜻**으로 비를내리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있다

그때 위제히부인이 부처님을 뵈옵고는 몸에 걸었든 영락을 스스로 싣어버리고 원몸을 들어 쌍에 던지며 부르지저 울며 부처님께 살우되 「부처님이시어 나는 전생에 무삼죄가잇서서 이다지 악한자식을 나앗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인연으로 제바달다가

치악한권속을 두셋습니까?」 부처님이시어 나를 위하옵서 걱정업는 데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세계에 왕생(往生)하렵니다 이 염부제(閻浮提)의 오락악세(五濁惡世)는 질겁지 안습니다 이세계에는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들이 가득차잇고 모든 조치못한것이 만사오니 나는 미래세(未來世)에 악한 소리도 듣지 안코 악한 사람도 보지 안으렵니다 지금 부처님압헤서 오체(五體)를 땅에 던지어 슬피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예옵서 나의게 청정한곳을 보도록하여 주옵소서!」

그말씀싣헤 부처님이 미간으로부터 광명을 노흐시니 그광명은 금색이라 십방(十方)에 한량업는 세계를 비추고는 다시 부처님의

이마우으로 도라와서 화하여 황금대를 이루되 높기 수미산(須彌山)가드매 서방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묘한 국토가 모다 그속에 나타나 되 었던 국토는 철보가 합해서 되고 었던 국토는 연화로 되고 었던 국토는 자재천궁(自在天宮)가드며 었던 국토는 유리거울가래서 서방 국토가 모다 그중에 나타나는데도 있서서 이러케 한량업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낫나 치나 타나서 위제히부인으로 하여금 분명이 보게 되 었섯다

그때 위제히부인이 부처님께 살우되 「부처님이시여 지금에 보이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들이 낫나 치 청정하고 광명이 잇기는 하나나 나는 지금 극낙세계 아미타불 처소에 나기를 원하오니 부

처님께옵서 는 나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는 빙그레 우스시니 오색광명이 부처님의 입으로 조차나와서 낫낫 광명이 빈바사라왕의 이마에 빈추시니 그때 빈바사라왕이 비록 수금중에 잇스나 마음과 눈에 실음업시 부처님을 뵈옵게 되어 머리조아 예배함애 자연이 공부가 정진되 어서 아나함(阿那含)이 세상에 다시 나지 안케된 도과(道果)이라는 성과(聖果)를 얻게 되었섯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위제히야 네가 지금 알겠느냐?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은 여기서 멀지 아니하니 너는 맛당이 생각을 일처에

두어서 그 나라를 자세히 생각하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며 또한 미래세에 일체 범부가 정업(淨業)을 닦으려하는 자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나도록 하게 하겠노라

위제히야 극락국도에 나고저하는 이는 맛당이 세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효도로 부모를 봉양하며 사장을 잘 섬기고 자비심으로 산목숨을 죽이지 아니하여 열가지 착한업(十善業)이니 살생안코 도적질안코 음행안는 세가지는 몸으로 행하는 착한업이오 거짓말아니하는 것 악한말아니하는 것 두가지 말아니하는 것 씨며 말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 행하는 착한업이오 탐심업고 진심업고 치심업는 것은 뜻으로 행하는 착한업(意)이라 을 닦을 것이며 들재는 삼귀의

(세곳에 귀의하는 것이니) 곧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僧伽)에 귀의하는 것이라)를 바다가 지며 여러가지 계행을 구족하게 지켜 위외에 범치 않는 것이며 셋째는 보리심을 발하여 인과를 깊히 밋고 대승경전을 항상 읽으며 수행하는 사람을 권진하는 것이니 이 세가지 일을 정업이라고 하나니라

위제히야 네가 지금 알아드렸느냐 이 세가지 정업은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업이며 바른 일이니라

위제히야 잘 생각하여라 부처님이 지금 미래세의 모든 중생이 번노라는 도적의게 해입는 사람들을 위하여 청정한 업을 말습하게 되었스니 위제히야 이번 무름은 잘 무른 것이다

아란아 너는 맛당이 이대로 밧아가지고 모든 만흔대중을 위하
야 부처님의 말씀을 퍼여 연결하여라 부처님이 지금 위제회와 밋
미래세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서방 극락세계를 보되 부처님 신력
으로 저 극락세계의 청정한 국토를 마치 거울을 들고 제 얼굴보
듯하리니 극락세계의 모든 극히 묘하고 절거운일을 보고는 그
마음이 환희하여 곧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으리라

위제회야 너는 범부라 마음이 열하고 천안(天眼)을 엿지 못하여
서 멀리 보지 못할터이니 모든 부처님의 방편(方便)으로써 너로 하
야 곧 극락세계를 보게 하리라.

위제회가 살와 말삼하시되 부처님이시여 나는 지금 부처님의
힘을 입사와 극락세계를 보겠사오나 만일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에는 모든 중생들이 악한 세상에 착지 못한 일만 하여서 여러 가지
교(苦)에 휩박을 당할터이니 엿더갯해야 사야 미타불의 극락세계
를 볼수가 잇겟습닛가

위제회야 네가 중생이나 맛당이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을 일처
에 두어서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해야 한다 엿더한 생각을 해야 하
느냐 하면 열여섯가지의 처사가 있다 하시고 아래와 가치 관하는 법
을 말씀하것다

첫째는 해를 관하라
해를 엿더케 관하는 고하니 일체 중생이 배안 장님이 아나고 눈이

잇는자이면 누구나 해 지는것을 볼것이니 온전한 생각으로 단정이
서향하고 안저서 해를 자세이 관하야 마음이한곳에 전일하여서 생
각이 동하지안케하고 지는해가 북다라 맨것을 보라 해를 본후에는
눈을뜨나 눈을감으나 항상 분명이 나타나게하라 이러케 하는것을
일관(日觀)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물을 관하라

해를 관하야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여일하게 북을 다라 맨듯한
지는해가 나타나거든 그다음에는 물을 생각하되 물이 맑았게보이
며 밝게보이어서 쏘이 산란치안도록 관하고는 다시 이름을 생각하
되 어렵이 많아서 유리가치 생각하며 그 생각이 익은후에는 그 유

리가 쌓이된줄로보되 그 쌓이 많아서 안박이 환히비취며 그 쌓밋
혜는 금강(金剛)칠보(七寶)로된 금당(金幢)이 잇서서 그 쌓을 바치고
잇스되 그 금강은 팔모로되야 여덟모가 구족하되 낮낮모가 백가지
보배로되고 낮낮 보배구슬에 천가지 광명이 나오며 낮낮 광명에팔
만사천가지 바치잇서서 유리로된 쌓을 비취면 마치해스 광명이여이
나 천이나 비취는듯하야 가추 다볼수가 업스며 유리쌍우에는 황금
줄로 이리저리 줄을쳐서 칠보의 각단이 분명이 잇게하고 낮낮보배
에서는 오백가지 비치잇는 광명이 잇스되 그 광명이 쏘갓기도하고
또 별도갓고 달도갓하야 공중에 달려잇서서 광명대가 되고 대우에
는 누각(樓閣)이 천이나 만이나 잇스되 모다 백가지 보배로 합해되

고 광명대 양쪽가에는 각각 조흔 햇흐로된 집스대가 백역식 있스
되 할량업는 악기(樂器)로 장엄하여서 여덟가지 맑은바람이 광명에
서 나와서 이 악기를 고동시키면 그 악기에서는 고(苦), 일체가 락
이 업다는 뜻(공(空), 일체가 진실한 것이 업다는 뜻) 무상(無常), 일체
가 덧업다는 뜻(무아(無我), 일체가 내랄 것이 업다는 뜻)의 소리로 연
설하나나 이러케 관하는 것을 수관(水觀)이라고 한다.

셋째는 땅을 관하라

이러케 관하는 생각이 순속하여지는 때에는 아모썸록 요요분명
(了了分明)하게 하여 눈을 감으나 뜨나간에 잠들지안는 동안에는 항
상 이러케 생각하면 극락세계의 땅을 조금 보왔다 할 것이오 만일

다시 삼매(三昧)를 얻어서 극락국토를 요요분명하도록 보게 되면 그
것을 지관(地觀)이라고 한다 미래세 모든 대중에 고(苦)를 버서나
고저 하는자는 맛당이 이 지관법을 할 것이오 이 지관법만 성취하
드래도 팔십억겁의 생사중죄를 버서나서 그 몸을 버리고 그 후생에
는 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마음에 의심이 업슴을 얻으리라
넷째는 보배남글 관하라

지관이 성취된 다흠에는 보배남글 관하라 보배나무를 관하랴거
든 이러케 생각하라 첫재일곱겹으로 줄남기 섰다고 생각하되 낮
나무가 모다 팔천유순(由旬, 일유순이 사십리니 팔천유순이면 삼백
이십만리라)이나 높흐며 그러케 높흔 보배나무에 칠보로된 싯과칠

보로된 입새가 구족하게 달렸거던 낫낫 싯과 낫낫 입새가 모다 이
 상한 보배人 빚치 되여서 유리人 빚헤서는 금색 광명이 나오고 피리
 (玻黎)人 빚헤서는 붉은색 광명이 나오고 자거(砮磲)人 빚헤서는 녹색
 주(緣眞珠) 광명이 나오고 산호(珊瑚) 호박(琥珀) 일체 보배가 서로 빛
 취며 장엄이 되고 묘한 진주 그물로 나무를 덥혔스되 나무마다 일곱
 겹으로 그물을 덥고 그물새이마다 오백억이나 되는 묘한 싯으로 일
 운 궁전이 잇스되 마치 범왕궁(梵王宮) 대범천왕의 궁전)가 트며 모든
 천동(天童)들이 자연이 그 궁전속에 잇스며 낫낫 동자가 각각 오백
 억 석가비능가마니(釋迦毘楞迦摩尼)라는 보배로 영락을 삼았는데 그
 영락에서 나오는 광명은 백뉴순(사천리)을 빚취되 마치 일월을 백억

이나 한테 화합한 듯하야 엇딛타고 말할수 업스며 여러 보배가 새이
 새이 석기여서 광명중에 제일이란 이러한 보배가 줄줄이 서로 맛고
 입새가 서로 서로 비늘달리고 입사귀 새이마다 여러가지 묘한 싯치
 생기면 그 싯우에는 자연이 첩보과실이 잇스며 나무넝흔 낫낫치 기
 리나 널비가 똑가타서 모다 이십오유순식이오 그 입새는 천가지 빛
 에 백가지 그림이 잇스되 하늘사람들이 영락가 트며 여러 묘한 싯촌
 염부단(閻浮檀) 금색 광명이 나오되 마치 번개스불처럼 입사귀 새이
 로 도라다니며 모든 과실이 생겨나되 마치 제석(帝釋) 천병(瓶)갓고
 큰 광명이 잇스되 화하야 당번(幢幡)과 할량업는 보배 일산이 되면
 그 일산속에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든것

을 십억(十億)이나 한해 모은 것)에 잇는 모든 불사가 나타나며 십방(十方)에 잇는 모든 부처님의 나라도 역시 그 속에 나타나나니 이나 무를 관하고는 다시 저나 무를 관하야 차례차례로 나타나니 관하야 등결이며 줄기며 가지며 입사귀며 쏘이며 과실을 모다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관하는 것을 수관(樹觀)이라고 한다

다섯째는 팔공덕수(八功德水)를 관하라

그다흠에는 못물을 관하라 극락세계에는 팔공덕수(八功德水)여덟 가지공덕이 잇는 물이니 맑고 차고 달고 가비압고 윤택하고 화하고 갈증제하고 몸에 이로운 것의 못이 잇스되 못물이 모다 칠보로 되 엿스며 그 칠보는 부드럽고 연하야 여의주(如意珠)에서 소사나와서

열네갈래로 갈라지되 낫낫갈래가 모다 칠보스빛치되고 황금으로 개천이 되고 개천밋헤는 모다 여러가지 색으로된 금강보로 모래가 되고 낫낫 못물속에 육십억 칠보연화가 이스되 연화마다 도래가 딱가타서 십이유순(사백팔십리)식이요 마니(摩尼)보배스물이 쏘새 이로 흘러내려 미묘한 소리로 고(苦) 공(空) 무상(無常) 무아(無我) 모든 부처는 바라밀(波羅蜜) 저언덕으로 간다는 뜻)을 연설하며 혹은 모든 부처님이 상호(相好)를 찬탄하는 소리도 나고 여의주에서는 미묘한 금스빛 광명이 소사나오면 그 광명이 화하야 백가지 보배스빛출가진 새가 되여서 아름답게 울음을 울어 항상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을 찬탄하나니 이것이 팔공덕수관이라 한다

여섯째는 나무와 땅과 못을 총관하라

우에 말한바와 가리여러가지 보배로된 극락국토의 낫낫지경에
오백억이나 되는 만흔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속에는 할량업는 모든
하늘사람들이 모다 하늘 풍악을 하고잇스며 또 악기가 공중에 달
려잇스되 하늘에잇는 보배짐스대가튼것이 치지아니하여도 제절로
울어서여러 풍악소리가 들리되 그 모든풍악중에는 모다 염불염
법 염승을 설하여주나니 이러케 생각하여서 성숙이되어 극락세계
의 보배나무와 보배쌍과 보배못을 대강 보게되는것이 총관(總觀)이
되는것이니 이만치만 보는자도 무량억겁의 극중한 악업을 멸하고
죽은후에는 석극락세계에 나게되리라

일곱째는 화좌(華座)를 관하라

그다흠에는 칠보로 이루어진 그쌍우에 연화가 핀줄도 생각하되
그연화 입새가 낫나치백가지 보배 빛츠로되고 입새줄기가 팔만
사천이잇스되 모다 하늘 그림갓고 즐기마다 팔만사천 광명이 잇스
되 되록되록 분명하야 낫나치보게되고 싯납히 적은것도 세로나 가
루로나 모다 이백오십유순이되나니 이런 연화에 팔만사천 싯납히
잇고 낫낫 싯납새이마다 백억 마니주(摩尼珠)로 장엄하고 낫나 마
니에 천가지 광명을 노야 그광명이 일산갓고 칠보로 합해되여서
원쌍우에 덩히엿스되 석가비능가라는 보배로 연화대가되고 그연
화대에는 팔만 금강보(金剛寶)와 견숙가보(甄叔迦寶)와 범마니보(梵

摩尼寶와 묘한 진주그물로 교식(交飾)을 삼고 그대우에는 자여이 보당(寶幢)으로 된 네가동이 잇스되 낫낫 보당이 마치 백천만억 수 미산(須彌山)가치 높고 당우에는 보만(寶幔)을 내리웠스되 마치 야마 천궁(夜摩天宮)가튼데 오백억이나 되는 미묘한 보배구슬로 장엄하엿스되 그 보배구슬에서 낫나치 팔만사천 광명이잇고 그 광명은 낫나치 이상한 금빛이되고 그 빛은 낫나치 그 보배쌍에 두루덥히어서 곳곳지 변화하야 각각 이상한 형상이되되 혹은 금강대도되고 혹은 진주그물도되고 혹은 잡색 싯구름도 되어서 십방(十方) 여러 방면 뜻대로 현화하야 불사를 이루나니 이것이 화좌관이라 이 연화는 본래 법장비구(아미타불의) 인생쪽에 일흠의 원력으로 된바 이

나 만일 그 부처님을 생각하랴거든 먼저 아 화좌부터 생각해야한 다 이 화좌를 생각할때에는 한데 석거서 관하지 말고 낫낫치 관하되 낫낫 입새와 낫낫 구슬과 낫낫 광명과 낫낫 대와 낫낫 짐스대를 모다 분명하기 거울속에서 제얼골보듯하랴 이 관이 성취된자는 오만겁 생사죄를 멸하고 색 극락세계에 나게되리라 여덟째는 불상을 관하라

이러게 관한후에는 맛당이 부처님을 생각해야한다 엇저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몸은 법계로 몸을 삼아 모든 중생의 마음 생각속에 드러잇나니 이점으로 너의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 이 즉시 삼십이상(三十二相) 팔십종호(八十種好)며 그 마음으로 부

처가되며 그 마음이 곧 부처라 모든 부처님의 정편지(正編知) 바로
알고 두루아는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도 그 마음으로 조차 생기나
니 이런고로 맛당이 일심으로 그 부처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 부처
님을 생각하라 거던 먼저 그 형상부터 생각하라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보배불상한분이 염부단 금색 가트사 저 솟우에 안즈신줄로
보하라 불이 안자게심을 본뒤에는 마음과 눈이 열리어 요요분명하
게 극락세계를 보되 철보로 장엄한 보배쌍과 보배못과 보배나무가
줄줄이 선것과 모든 하늘의 보배장막으로 그 우에 덮힌것과 여러
가지 보배그물이 허공중에 차잇는것들을 극히 명요하야 손바닥에
과실보든 한후는 다사 큰연화 하나이 부처님 원편에잇스되 전엿

연화와갓하서 다르지 아니하며 또 큰연화 하나는 부처님 올흔편에
잇스되 역시 전엿연화와 똑 갓하서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데 관세
보음살 한분이 부처님 왼쪽 연화에 안즈사 금생 광명을 노으심이
부처님과 갓하 다르지 아니하며 또 대세지보살 한분은 부처님 올흔
쪽 연화에 안즈사 역시 금색 광명을 노으되 부처님과 갓홀줄로 생
각하야 이생각이 순숙하여지거던 다시 생각하되 한부처님과 두보
살님이 모다 광명을 노으시되 그 광명은 금빛이 되여서 모든 보배
스나 무를 빚치시면 모든 나무밋마다 다시 연화셋식이잇고 그 연화
우에는 각각 한부처님과 두 보살이 계시사 원 극락국에 변만한줄
로생각하라 이생각이 성숙되는데는 맛당이 물 흐르는광명과 밋

모든 보배스나 무와 오리 기러기 원앙새 같은 것들이 모다 묘법 설하는 것을 드러서 정에 들든지 정에 나든 시간에 항상 묘법을 드를 것이오 정중에서 들은 것을 정에 나온 후라도 생각하여 이저 버리지 아니하여 정엿 말삼과 색 마즈리니 맞지 아니하면 망녕된 생각이오 마즈면 추(세밀치 못한)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니 이것을 상관(像觀)이라 이관만 엿어도 무량억겁 생사 중죄를 제하고 곧 현신에 염불삼매(念佛三昧)를 얻으리라

아홉째는 무량수불을 관하라

그다음에는 다시 무량수불(無量壽佛)의 신상(身相)광명을 관하라 무량수불께서는 신상은 마치 야마천(夜摩天)의 여부단(閼浮檀)금색

을 백천만억배나 한듯하며 부처님의 몸은 놀흐서기가 육십만억나 유타항하사유소(六十萬億那由陀恒河沙由旬)이시고 미간에 잇는 백호(白毫)는 을후도라간 것이 수미산 다섯갈절만하고 부처님의 눈은 새해바닷물갓흐시되 청백이 분명하고 몸에 잇는 모든 털구멍에서 광명이 흘러나오되 마치 수미산갓흐며 부처님의 원광(圓光)은 삼천대천세계의 백억배나 되어서 그 원광속에는 백만억나유타항하사(百萬億那由他恒河沙)화불이 계시되 낫낫 화불에 무수한 화보살(化菩薩)이 잇서 시자(侍者)가 되시며 무량수불은 팔만사천 상(相)이 잇스되 낫낫 상에 각각 팔만사천 형호(形好)가 잇스며 낫낫 형호에 다시 팔만사천 광명이 잇스샤 낫낫 광명이 십방세계를 빙취어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攝取)하시나니 그 광명과 상호와 및 화불은 말로 다할 수가 업스니 다만 마음으로 생각하여서 마음으로 보게하라 이러케 관한자는 곳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볼수잇스니 모든 부처님을 보게되는고로 일흠을 염불삼매(念佛三昧)라고하나니 이관을 성취한 사람은 일체 부처님의 몸을 관하여 부처님의 몸을 관하는고로 부처님의 마음도 볼수잇나니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비(大慈悲)가 그것이 라 연이업는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섭취 하시나니라 이관이 성취된자는 이몸을 바리고 타생에는 곳 모든 부처님 압헤 태어나서 무생인(無生忍)을 얻을것이니 이런고로 지혜잇는자는 맛당이 마음을 부처이 무량수불을 관할것이니라 무량수불을 관하는이는 한가지 상호로만 조차 드러갈것이니 다만 미간 백호만을 관하되 극히 명요하게 관하라 미간 백호를 보게되면 팔만사천상호가 자연이 나타나날것이오 무량수불 한분만 보게되면 곳 시방에 빠사는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볼것이니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보게된고로 모든 부처님이 압헤 나타나서 수기(授記)를 하시라니 이것인 일체 색신을 두루 관찰하는 색신관(色身觀)이니라

열재는 관세음보살을 관하라

무량수불을 요요하게 관한 다름에는 다시 관세음보살을 관하라 이 관세음보살은 신장이 팔십만여나유순(八十萬億那由旬)이오 신색은 자금색이오 이마에는 육계(肉髻)가 잇고 목에는 원광(圓光)이 잇

스되 원광의 면(面)이 각각 중심에서 백천유순식이오 그 원광속에는 오백화불이 계시되 모다 석가무니 부처님갓고 낫낫 화불에는 오백억 화보살과 무량한 모든 하인들이 잇서서 사자가 되었스며 원몸에서 나는 광명중에는 오도(五道) 천도 인도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畜生) 중생의 색상이 모다 그속에 나타나며 이마우에는 비능가마니(毘楞伽摩尼)라는 보배로 천관(天冠)이되고 그 천관속에는 화불한분이 서섯스되 키가 이십오유순이오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엄부단금색갓고 미간에 백호상은 칠보색이 구족하야 팔만사천가지 광명이 흘러나오되 낫낫 광명에 무량무수한 백천화불이 계시고 낫낫 화불에는 무수한 화보살을 시자를 삼으시며 그 광명이 변현이 자재하사 사

방세계에 충만하시되 홍연화 빛과도 갓흐며 팔십억 광명으로 영나을 삼앗스니 그 영나 속에는 일체 모든 장엄이 나타나며 손바닥은 오백억 잡연화(雜蓮花)생을 이루며 열손가락 뜻혜는 손가락 뜻마다 팔만사천 획이잇스되 마치 인발갓고 낫낫 획에는 팔만사천색이잇스며 낫낫색에는 팔만사천 광명이잇스되 그 광명이 부드럽고 연하야 일체에 빛취시는데 이 보배손으로 중생을 접인하며 발을들때에는 발밋혜는 천북륜상(千輻輪相) 수레사박휘처럼 뱅뱅도라가는문채(文彩)이잇는데 자연이 화하야 오백억 광명대(光明臺)가되고 발을 디딜때에는 금강마니(金剛摩尼)로된 연꽃이 온갓군데 흐터져서 미만(彌滿)치아니하는데가 업나니라 그 남어지 신상에도 여러가지 상호가

구족하야 부처님으로 더부러 다르지 아니하되 오족 이마우에 육계
(肉髻)와 밋 무견정상(無見頂相)만이 제존만 못하나니 이것이 관세
음보살의 진신색상(眞身色相)을 관하는것이라 이관세음보살관을 하
랴거던 맛당이 이러케 관할지니 이관을 하는자는 모든 재화를 만
나지 아니하고 업장이 깨끗이 업서저서 무수겁생사중죄를 멸하나
니 이런보살은 그 일흠만 듯드래도 무량한 복을 받드려든 하물며
자세이 모든 색상을 관할이라 관세음보살을 관하랴거던 먼저 이마
우에 육계를 관하고 다흠에 천관을 관하고 그 나머지 여러 상호를
차례차례로 관찰하되 낫낫치 명요하기를 손바닥엿것 보듯하는것이
일흠이 관세음보살관이다

열한재는 대세지보살을 관하라

그 다흠에는 다시 대세지(大勢至)보살을 관할것이니 이 보살의
신량(身量)대소가 또한 관세음보살과 갓흐며 원광명은 각각 일백이
십오유순이요 이백오십유순을 빈취며 원통엿광명은 서방국에 비취
어 자금색을 지어서 인연잇는 중생은 다잇어 보게되나니 다만 이
보살의 한 털구멍광명을 보드래도 곳 서방에 무량한 모든 부처님
의 깨닫하고 묘한광명을 보게되나니 이런얼골로 이보살을 무변광
(無邊光)이라고 일흠하여 지혜의 광명으로써 일체를 비취사 하야
금 삼도(지옥 아귀 축생)을 여의고 우업는 힘을 엿게할새 이런고로
이 보살을 대세지(大勢至)라고 일흠하나니 이 보살의 천관에 오

백 보배 싯이 잇스되 낫낫 싯해 오백 보배 대(臺)가 잇스며 낫낫
 대에 시방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묘한 국토가 모다 그 가운데
 나타나며 이마우에 육계는 발두마(鉢頭摩) 싯 갓흐며 육계 우에 한
 보배 병이 잇스되 모든 광명을 담아서 부처님의 일이 모다 그중에
 나타나고 그 나머지 모든 신상은 관세음보살과 조공도 다름이 업
 나나라 이 보살이 행해 다닐때에는 시방세계에 일체가 진동하며
 발을 옮겨놓는 당처에는 오백억 보배 싯치잇스되 보배싯마다 장엄
 하고 높히 나타나는것이 마치 극나세계 갓흐며 이 보살이 안즐때
 에는 칠보 국토가 일시에 동요하며 하방(下方) 금광불찰(金光佛刹)
 로부터 상방(上方) 광명왕불찰(光明王佛刹)까지의 중간에 한량업는

되슬수갓흔 분신(分身)한 무량수불과 분신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
 살이 모다 구름가치 극나국토로 모히여서 공중에 갓득차며 연화좌
 (蓮華座)에 안자서 묘한법을 연설하야 고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나
 니 이러케 보는것이 대세지보살의 색신관이라고 일흠하나니라 이
 보살을 본사람은 무수겁아승지(阿僧祇) 생사중죄를 멸하나니 이 관
 을 성취한자는 포태(胞胎)중에 들지아니하고 항상 모든 부처님의 때
 싯하고 묘한 국토에 놀게되나니 이관이 성취되면 일흠이 관세음
 대세지를 지극히 관함이라

열둘재는 널리 관하라

이러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볼때에는 맛당히 자기 마음

이 극낙세계에 태어나는 줄로 생각을 이르게어서 자기가 연화중에
가부좌(迦趺座)를 맺고 앉았던 연화가 오부러졌거니 생각하며 그다
음에는 연화가 지금의 지니 생각하며 그 연화가 필때에는 오백가지
빛이잇는 광명이 내몸에 비치지니 생각하며 내 눈을 뜨거니 생각
하야 부처님과 보살들이 허공중에 찾거니 보며 물과 새와 나무와
밋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는바 음성이 모다 묘한 법을 연설하야 십
이부경(十部經)으로 더브러 상합함을 보아서 정에 난 뒤라도 생
각하고 일치아니 하나니 이런것을 보는것이 일홈이 무량수관의 극
낙세계를 보는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넓이관하는 것이니 무량수 부
처님의 화신이 수가업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더브러 항상

이 사람의 처소에 오시리라

열셋째는 석거 관하라

지심으로 서방 극낙세계에 태어나 라고하는 자는 먼저 맛당이
장육상(丈肉像)한분이 못우에 서서 계시는 줄로 관하되 전에 말한바
와 갓치하라 무량수불의 신량(身量)은 가이 업스사 범부의 심력으로
미치지 못할바 이 지마는 저 부처님의 숙원력(宿願力)이 계시는 까닭
으로 생각하는자 곳 잇스면 반듯이 성취됨을 엿나니 다만 불상만
생각하드래도 한량업는 복을 엿으려던 하물며 부처님의 구족하신
신상을 관함이라 아마타불의 신통이 여의하사 서방 국토에 변현이
자재하시샤 혹은 큰 몸을 나추어 허공에 차기도하며 혹은 적은 몸을

나 추어 장륙팔척(丈六八尺) 열예자나 열여덟자나 된다는 말(이 되시되
나 추신 형상은 모다 지금색이오 원광과 화불과 밋 보배 연화 갓흔
것은 모다 우에 말한바와 갓흐니라 관세음보살과 밋 대세지보살은
일체처에 몸이 갓흐시나 중생은 다만 머리만 보고 이는 관세음보
살이다 이는 대세지보살이다 아나니 이 두 보살은 아미타불을 도아
서 일체를 교화하시나니 이러케 관하는 것을 잡관(雜觀)이라고한다
열넷째는 상배생(上輩生)을 관하라

상배생이라 함은 상품상생(上品上生) 상품중생(上品中生) 상품하생
(上品下生)을 말함이니 상품상생이라는 것은 엇던 중생이던지 저 극
락국도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던 세가지 마음을 발하면 곧 왕생(往生)

하게 되나니 엇던것을 세가지 마음이라 하나요 첫째는 지성스러운
마음이오 둘째는 기쁜 마음이오 셋째는 회향(回向) 발원(發願) 하
는 마음이니 이 세가지 마음이 구족한자는 반듯이 저게 가서 태어
나리라 다시 세가지 왕생을 엇으리니 엇던것을 세가지 중생이라
고 하나요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지 아니하며 모
든 계행이 구족한 중생이오 둘째는 대승(大乘) 방등(方等) 경전(經
典)을 읽고 외이는 중생이오 셋째는 육바라밀을 수행하여 회향발
원하야 저나라에 나기를 원하는 중생이니 이러한 공덕이 구족하
면 하루 내지 일해만이면 곧 왕생함을 엇으리니 저나라에 태어날
때에는 이 사람이 용맹(勇猛) 정진(精進)한 연고로 아미타불께서 관

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무수한 화불과 백천비구(比丘)들과 밋성
문(聲聞)대종과 무수한 모든 천인(天人)과 철보궁전으로 관세음보
살은 금강대(金剛臺)를 밋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행자(行者)의 압
헤 이르러 아미타불께서는 큰광명을 노으사 행자의 몸을 비취시며
모든 보살들로 더불어 손을 주어 영접하시며 관세음보살과 대종저
보살은 무수한 보살들로 더불어 행자를 찬탄(讚歎)하야 그 마음을
권진(勸進)하시면 행자는 그것을 보고 환희(歡喜)와 발躍(踴躍)하야 스사
로 제 몸이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 뒤를 따라 일탄지(彈指)동안에 저
나라에 왕생하리니 저 나라에 난뒤에는 부처님 생신에 여러 상호
가 구족함도 보며 모든 보살의 색상이 구족함도 보며 광명과 보배

수풀이 묘한법을 연설함도 드러서 드른 후에는 곧 무생법인(無生
法忍)을 얻고 수유경(須臾頃)에 모든 부처님을 섬기어 시방 모든
부처님압해서 차제로 수기를 밋고는 본국으로 도라와서 한량업는
백천 다라니문(陀羅尼門)을 얻나니 이것은 상품상생하는이니라

상품중생이라는것은 반듯이 방등경전을 수지(受持)독송(讀誦)치
안드래도 의취를 잘 아라서 제일의(第一義)에 마음이 경동(驚動)되
지 아니하며 인과를 깊히 밋어 대승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런 공
덕으로 회향하고 발원하야 극낙국도에 나기를 구하나니 이런 행을
행하는이는 목숨이 찌러지라 할때에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
지보살로 더불어 한량업는 대종 권속의게 위요(圍繞)되야 자금대(紫

金臺를 가지고 행자의 압해 이르러 찬탄하야 말씀하시되 법자(法子)야 네가 대승도를 행하며 제일의를 아는고로 내가 지금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하시며 일천화불로 더브러 일시에 손을 주시나니 행자가 스사로 보되 자기 몸이 자금대에 안저서 합장하고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며 일념 동안에 곧 저극락세계 철보 못가운데 태어나나니 이 자금대가 큰 보배 솟과 같아서 하루스밤을 지내고 피게 되면 행자의 몸은 자마금색(紫摩金色)이 되고 발밧헤 또한 철보연화가 있스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일시에 광명을 노아서 행자의 몸에 빈취시면 행자의 눈이 곧 열리며 전세의 숙습(宿習)으로 널리 여러소리가 순전이 심히 깊은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설하는것을 듯

고 곳 자련대에 나려서 부처님께 여배하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다가 칠일을 지내면 곧 아낙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 불퇴전(不退轉)을 잇고 그 즉시로 능히 나려서 시방에 두루 이르러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삼매를 닦아 한 소집(小劫)을 지내고는 무생법인을 잇어 현전에 수기를 받나니 이것이 상품중생하는이니라

상품하생이라는것은 역시 인과를 밋으며 대승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상도심(無上道心)을 발하야 이러한 공덕으로 회향하며 발원하야 극낙국에 나기를 원하나니 이 행자는 목숨이 찌러저려할 때에 아미타불과 밋 관세음보살이 모든 권속으로 더부러 금언화를

가지시고 화하여 오백 화불이 되어서 이 사람을 영접하샤 오백 화불이 일시에 손을 주시며 찬탄하야 말씀하시되 법자야 네가 이제 청정하야 무상도심을 발해슬세 나가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하시거던 이런일을 볼대예 행자가 스사로 보면 자기의 몸이 금연대(金蓮臺)에 안고 안존후에는 뜻이 오부러져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 곳칠보 못가운데 왕생함을 얻어 하루스밤 하루스낮 줄 지내면 연화가 피고 철일만에 부처님을 얻어 뵈오되 비록 부처님의 몸은 뵈왔스나 여러 상호에는 마음이 명요치 안타가 삼철일을 지내후에야 이에 요요하게 보며 모든 음성이 모다 묘법설하는것을 듯고 시방에 유력(遊歷)하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 압해서 심히

기쁜 법문을 드르며 삼소겁(三小劫)을 지내고는 백법명문(百法明門)을 얻어 환희지(歡喜地)에 주하나니 이것은 상품하생하는것이라 이러케 관하는것을 상배생관(上輩生觀)이라고한다

열다섯재는 중배생(中輩生)을 관하라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을 중배생이라고 한다 만일 중품상생을 원하는 중생이어든 오계를 가지며 팔계를 가지며 모든 계행을 다그며 오백죄를 짓지아니하야 모든 허물이 업고 이러한 선근으로서 방극낙세계에 왕생하기를 회향 발원하면 그사람이 죽으려 할때에는 아미타불에서 모든 비구로 더부러 권속의게 위요한바되 시샤 금색광명을 노으시며 그사람의 처소에 이르러 고(苦) 공(空) 시샤

무상(無常) 무아(無我)를 연설하시며 출가하여 여러가지 고(苦)여의
는 법을 찬탄하시샤 행자로하야곰 마음이 환히하야 스사로 자기몸
이 연화대에 안저서 장피합장(長跪合掌)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머
리도 들기전에 벌서 극낙세계에 왕생하야 연화가 곳에 피되 그곳이
필때에 여러가지 음성인 사제법(四諦法、苦、集、滅、道) 찬탄하는것을
듯고 그 즉시에 아라한(阿羅漢)도를 엇어 삼명(三明) 육통(六通) 팔
해탈(八解脫)이 구족하게되나니 이것이 중품중생이다

중품중생하는자는 어썤중생이든지 만일 하로스밤 하로스낮이라
도 팔계를 가지거나 사미계(沙彌戒)를 가지거나하야 위의(威儀)가
결한데업고 이런 공덕으로 극낙국에 나기를 회향발원하야 계향(戒

香)에 훈수(薰修)하면 이런 행자는 명이 마치려할때에 아미타불세
서 모든 권속으로 더부러 금색광명을 노으시고 철보연화를 가지시
고 행자의 압해 오시는것을 보며 행자의 귀에 들리기를 공중에서
소리가잇서 찬탄하야 말을하되 착한 남자야 너가튼 착한 사람은
삼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수순하는고로 내가 와서 너를 마
저가노라하며 스사로 자기몸이 연화우에 안즈면 연화가곳 오부러
지면서 벌서 서방 극낙세계에 나서 보배 못속에 일혜를 지낸뒤에
연화가 피며 연화가 핀후에는 눈을 뜨고 합장하야 부처님을 찬탄
하며 법을 듯고 환희하야 수다원(須陀洹)도를 엇고 반겁(半劫)을
지낸후에 아라한이되나니 이것이 중품중생이다

중품하생이란 여썬 선남자나 선녀인이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며
세상에 인자(仁慈)를 행하면 이사람은 명이 마출때에 선지식을 맞
나게되며 아미타불의 극낙국도에 절거운일을 만이설해주며 또 법
장비구(法藏比丘, 阿彌陀佛의 因行때 일흠)의 사십팔원(四十八
願)을 설해주거던 그 법문을 드른뒤에 곳 명을마치어 장사의 팔을
펼등안이면 곳 서방 극낙세계에 나서 칠일을 지내고서 관세음보살
과 대세지보살을 만나 법을듯고 환히하야 한 소겁(小劫)을 지낸후
에 아라한이되나니 이것이 상품하생이다

열여섯재는 하배생(下輩生)을 관하야

하배생이란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을 말함이다 하품상생이

란것은 혹 어썬중생이 여러가지 악법을 짓나니 비록 방등경전은
비방치안트래도 악법을 만히짓고 부끄러움이 업다가 명이 마추려
할때에 선지식을 만나면 위하야 대승십이부경(大乘十二部經)의
제목(題目)명사자(名字)를 설해주어서 이러한 경전의 일흠을 드른
고로 일천겁 극중한 악법을 제하게되고 다시지혜잇는자가 합장하
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하야 부처님의 일흠을 부른고로 오억십
겁생사중죄를 제하게되면 그때에 저부처님이 화불과 화관세음(化
觀世音)과 화대세지(化大勢至)를 보내사 행자의압헤 이르러 찬탄
하야 말하되 착한 남자야 네가 부처님 일흠을 이샤린고로 모든 죄
가 소멸되고 내가 와서 너를 맛노라하면 행자가 곳 화불의 광명이

자기집에 풍만함을 보고 환희심이 나서 곳 명을 마치면 보배 연꽃
을 타고 화불의 뒤를 따라 보배 못가운데 나서 철철일을 지낸 후에
연화가 피면 필때에 곳 대비(大悲) 관세음보살과 및 대세지보살이
큰 광명을 노흐시며 그 사람압해 나타나서 심히 기쁜 십이불경을
설해주시리니 그 법문을 듯고는 밋고 알아 우업는 도심(道心)을 발
하야 십소법(十小劫)을 지내고는 백법명문(百法明門)을 가추어 초
지(初地)에 드러가게 되나니 이것이 하품상생이라 부처님 일흠과
법의 일흠과 밋중(僧)의 일흠을 듯게 되나니 삼보의 일흠을 드르
면 곳 왕생을 엿나니라

하품중생은 어썸중생이 오게 팔계 밋 구족계를 범하나니 이가튼

어리석은 사람은 승지(僧祇)의 물건을 도적질하매 현전승(現前僧)
의 물건을 도적하며 부정한 법을 설하되 부끄러움이 업고 모든 악
업으로 장엄하나니 이런 죄인은 악업으로 응당 지옥에 썩러지게 되
야 명이 마치려할제 지옥에 여러 불(火)이 일시에 나타나게 되니
그럴때에 신지식이 대자비심으로 그를 위하야 아미타불의 십력(十
力)위덕(威德)을 설해주며 또 그 부처님의 광명(光明)과 신력(神
力)도 설해주며 또한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
(解脫知見)을 찬탄하거던 그 사람이 듯고 팔십억겁 생사중죄를 제
하고 지옥의 사나운 불이 화하야 청량한 바람이 되어 모든 하늘뜻
을 부러오면 그 뜻우에는 낫나치 화불 화보살이잇서 이사람을 영

접하여 일념동안에 곳 철보 못가운데 왕생하여 연화안에서 육겁
(六劫)을 지내고 연화가 피거든 연화가 필때에 관세음보살과 대세
지보살이 범음성(梵音聲)으로 그 사람을 안위하여 대승(大乘)의 심
심경전(甚深經典)을 설해주시면 그 법문을 듣고는 그 즉시로 우업
는 도심을 발하나니 이것이 하품중생이다

하품하생은 어떤 중생이 불선(不善)한 업을 지어 오역(五逆)십
악(十惡) 모든 불선이 구족하나니 이러케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을
말미암아 응당이 악도에 떨어져서 다겁(多劫)을 지내며 무궁한고
(苦)를 밟으려마는 이런사람이 명이 마칠때에 선지식을 만나 종종
한 위안으로 위하여 묘법(妙法)을 설해주며 하야금 넘볼하게하나

그사람이 고(苦)에 부대세어 넘볼할 겨를이업는 지라 그때 그 선
지식이 다시 말씀하되 네가 만일 넘볼할수업거던 응당이 무량수
불을 하라하여 이러케 지심으로 권하여 소리가 싯치지안코 남무아
미타불을 불너 십념(十念)이 구족하게되면 부처님 일흠을 부르기
때문에 넘넘중에 팔십억겁 생사중죄를 제하고 명이 마칠때에 일륜
(日輪)만한 금련화(金蓮花)가 그압해 나타남을 보고 일념경에 곳
극나세계에 왕생하여 연화속에서 십이대겁(十二大劫)을 채우고는
연화가 필때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대비음성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널리 모든 법의 실상(實相)을 설하여 죄법(罪法)을 제멸하
거던 그사람은 그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그즉시에 곳 보리심(菩提

心)을 발하나니 이것이 하품하생이다
 이것이 열여섯가지를 차례차례 관하여 드러가는 극낙의 길이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때에 위제히와 오백시녀들은 곧 극낙
 세계의 광장(廣長)한 상을보며 부처님과 밋 두 보살을 보아서
 마음에 환희가 발하여 확연이 크게 새닷고 무생인(無生忍)을 어
 뎡스며 오백시녀는 아록다라삼맥삼보리심(阿耨多羅三藐三菩提
 心)을 발하여 극낙국토에 왕생하기를 원함으로 세존께서 모다
 수기를 주시되 당래에 저 극낙국토에 나서 모든 부처님의 현전
 삼매(現前三昧)를 얻으리라하시고 한량업는 모든 하늘은 우업는
 도심을 발하게되었나니라

昭和八年五月一日 印刷

昭和八年五月八日 發行

一九三三年

不許複製

著者
發行

京城府安國洞四十番地
 兼人 金 寂 音

印刷人 李 炳 華

印刷所 新少年社印刷部

發行所 禪學院

振替京城七一二一

京城府安國洞一五三番地

販賣所

中央書館

振替京城一二一七八

